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

태권도원 T1 경기장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
태권코레오 시범공연·유공자 표창 등 진행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태권도! 세계의 문화로 거듭나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해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사)태권도9단회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와 5개 연맹 등 태권

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순천 ITF 공보 부위원장도 참석해 기념식을 축하하며 태권도 화합의 기쁨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특별행사로 진행된 '2023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식'을 위해 고고의민 사범과 고 박선재 사범의 유가족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태권도원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은 2023 상남세계태권도 한마당 우승팀인 태권코레오의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장미란 차관의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태권도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영상,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신재현 한국가스공사 태권도단 감독, 유삼형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위원회 의장 이상일 태권해밀리 대표, 이승진 대한태권도협회 트레이너, 이우창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음악감독, 임인환 용산 태권도장 사범, 정문

자 대한태권도협회 교육강사, 최성주 금강 태권도장 사범, 최인경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문위원, 황준선 혜성 여자고등학교 교사, Dejin Sun 세계태권도연맹 중국 우시센터 명예센터장, Kamaliddin HEYDAROV 아제르바이잔 태권도협회 회장 등 12명이 수상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태권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똑같다"라며 "태권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오늘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2023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열린 4일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트트릭' 손흥민, 英 BBC 선정 베스트11 | EPL 버리 상대로 해트트릭 기록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버리와와의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후반 18분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마수잡이 골과 함께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BBC 선정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4일(한국시간)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베스트11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공격수 부문에 포함했다. 손흥민은 EPL을 대표하는 공격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비롯해 에번 퍼거슨(브라이튼)과 공격수 부문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 홀란, 퍼거슨은 약속이라도 한 듯 4라운드에서 나란히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승격팀 버리와 EPL 4

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3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앞서 리그 3경기에서 참목했던 손흥민은 시즌 마수잡이 골을 터뜨리자 기대했다는 듯 소나처럼 몰아쳤다. 리그컵까지 포함하면 시즌 공식전 5경기 만에 나온 골이다. 2015~2016시즌 EPL에 데뷔한 손흥민은 이날 리그 통산 104~106호골을 신고하며 EPL 통산 득점 랭킹을 공동 30위로 끌어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호날두(103골·알나스르)와 은퇴한 드로그바(104골)를 모두 넘어섰다. 손흥민은 절정의 골 결정력을 과시한 버리전을 통해 시즌 처음으로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해당하는 맨오브더매치에도 선정됐다. /뉴시스

9월, 도내 곳곳 체육대회 '풍성'

익산시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
전주서 월드컵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 등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크고·작은 체육대회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4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산)에 따르면 이달에도 도내에서 국내·외 체육대회가 다채롭게 열린다. 제28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는 오는 8일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지고, 도지사배야구대회는 8일부터 23일까지 익산과 군산, 장수 일원에서 진행된다. 도체육회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체육영재선발대회 본선(9일)과 결선(15일)도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지고, 50개국 약 3000명이 출전하는 전주 월드컵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도지사배 연합리딩은 16일 군산시에서, 전주비전대학교총장배 태권도대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이 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도지사배 빙상대회는 23일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도지사배 남매구대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우석대와 근영여고에서 열린다. /뉴시스

아시아대학축구 한국대표팀 감독 발탁

홍광철 호원대 축구부 감독
대회는 7~12일 강원 태백서

호원대학교 축구부 홍광철 감독이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 B팀 대표팀 감독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작년 2022년 한산대첩기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3위를 이끌었다.



특히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 대표팀 감독 선발은 국제대회 기술위원회를 소집, 대학 축구에서의 꾸준한 팀 성적 등을 반영, 홍광철 감독이 발탁됐다. 홍광철 감독이 이끄는 B팀은 건국대 이상환 수석코치, 전주기전대 신재훈 코치, 수원대 김성진 GK코치 등 총 2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이와 함께 대표팀 수비수로 선발된 호원대 축구부 박상우(스포츠크영학과 4년) 선수는 오는 12일까지 태백시에서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에 출전한다.

박상우 선수는 호원대 축구부의 팀의 주장으로 리더십을 보이며, 팀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줄 아는 선수라고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주축 수비수에 왕백 포지션을 맡는 이 선수는 활동량이 넘치는 플레이로 작년 춘계대학 우승과 전국체전 주역으로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한편 아시아대학축구대회는 2015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7~12일 태백시에서 한국(A·B팀), 일본, 중국, 대만, 이란, 말레이시아 등 총 8개국이 참가한다. /정은성 기자

황희찬, A매치 앞두고 부상 복귀해 시즌 2호골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튼)이 부상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와 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지난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에서 0-1로 뒤진 후반 20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0일 브라이튼과 2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는데 이어 두번째다. 한편 황희찬은 8일과 13일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2연전을 치르는 클린스만호에 합류한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7회
무주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전북지역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익산시, JTB 전북관광재단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